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10. 11(화)	
		작 성 문 의	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안보정책관 우성규 사무관 박유리 (Tel. 044-200-2134)
<p>* 즉시 사용</p>			

전략적 동반자인 태국과의 협력 관계 공고화

- 물관리, 철도, 위성 등 태국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기반 마련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등 태국의 對韓 호감도 상승
- 동남아 지역 중심국가인 태국와의 한반도·지역문제 협력 강화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0.11(화) 뿌라웃 찬오차(Prayut Chan-o-cha) 태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, 교역·투자, 인프라, 방산, 교육,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-태 양국 간 “전략적 동반자 관계”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양 총리는 양국 간 교역·투자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,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간 협의체 등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으며, 황 총리가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데 대해, 뿌라웃 총리는 양국간 기업 협력을 위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해결하겠다고 하였다.

※ 태국 진출 우리기업 관련, 철강제품 수입규제, 법인세 감면, 상호인증인정 확대, 지체보상금 문제 등이 계류

□ 황 총리는 양국간 실질협력이 최근 인프라 및 방산, 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, 물관리, 철도, 위성 등 태국의 각종 인프라 사업과 방위장비 조달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※ 태국내 우리측 관심 주요 프로젝트

▶ 물관리 사업

- 후웨이루양강 물관리 사업(홍수피해 저감·농업용수 증대 / 6,800억원, '17~'25년) 관련 금년 8월 우리 국토부-태국 농업부간 협력의향서 체결 후 사업 구체계획 협의중
- 태국은 향후 10여년간 30조원 규모의 新물관리 사업 추진 예정(홍수방지, 용수확보, 수질개선)

▶ 철도 사업

- 동서회랑 북측구간 철도(718km / 한-태 양측간 예비타당성 조사에 합의)
- 푸켓 트램(60km, 7,500억원 규모)

▶ 위성 사업

- 태측은 도시계획, 국토관측, 재난관리 목적으로 '20년 발사 목표의 위성 사업 추진(우리는 기술평가 결과 일단 8개 대상국에 포함)

- **쁘라윿 총리**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, 태국측으로서는 한국측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으며, 이와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.
- 양측은 양국 간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, 이번 총리회담 계기에 체결된 교육협력 MOU를 통해 한국어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등에 있어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**황 총리**는 북한은 최근 5차 핵실험에서 보듯이 민생을 외면한채 핵·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, **쁘라윿 총리**는 태국측은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확고한 협조 의사를 확인하였다.
- 금번 총리회담 계기에 양국 정부간 「교육협력 MOU」와 「철도 협력 MOU」가 체결되었다.

※ 교육협력 MOU

- (주요내용) △초·중·고등교육, 한국어 직업훈련 교육 분야에서 양국 간 정보·경험 공유, △관계기관(학계 포함) 간 인적교류 및 세미나 개최, △학습교재의 공동연구 및 개발, △양국 교육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조직 등
- (기대효과) 양국 인적교류폭 확대,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보급 확산

※ 철도협력 MOU

- (주요내용) 국장급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한 양국간 철도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
- (기대효과) 태측 사업 담당기관(교통부)과의 협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태국 철도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